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봉 양 순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 준 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양순·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들이 소개한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공립 예술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노원구는 강남구, 양천구와 함께 서울의 3대 교육도시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동북부 지역에는 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술중·고등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

로 이주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해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술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시 사립예술중고의 학생부담액은 예고 964만원, 예중은 950만원 가량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예고(공립)는 391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1년치 학비만 계산한 것으로 중등학교 6년과 입시에 필요한 사교육비를 합친다면 그 부담은 더 가중됩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만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K-POP, K-Culture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중·고의 경우 대부분 순수 예술(무용, 미술,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하계동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1만 933제곱미터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차장이 아닌 본래의 용도에 맞게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미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노원구 미개설 학교용지에 공립예술중·고등학교 설립으로 K-문화 콘텐츠를 꽃피울 미래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예술교육 지

원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노원구에 공립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을 강력히 염원하는 총 2,341명(온라인 473명, 오프라인 1868명)의 주민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주민들과 본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